지정학·인플레·매파적FOMC 삼중고 속 증시 하락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 yunjeong.kim@ls-sec.co.kr

확전과 유가와 파월, 증시 전 섹터 하락. 달러 강세에 원달러부담↑

- 미 증시는 DOW -1.63%, S&P500 -1.36%, NASDAQ -1.46% 하락. 전쟁 격화와 인플레 우려 맞물리며 전 섹터 하락한 가운데 다우지수는 연중 최저치 기록
- 마감후 마이크론 호실적도 큰 반향을 주지 못하는 모습이며, 샌디스크도 장중 강세였으나 시간외 하락
- 달러인덱스 100pt 선 상회, NDF 환율 1,500.70 원 마감

에너지 생산시설 타격에 유가 상승폭 확대 WTI $98.6(+3.2%), Brent $110.5(+6.8%)

- 이란 최대 가스전 사우스 파르스 피격, 에너지 생산시설에 대한 첫 공격. 천연가스(+4.7%) 등 원자재 가격 자극. 이란은 걸프국 생산시설을 타깃한 보복공격을 예고, 유가 상승폭 확대
- 미·이스라엘 표적공습으로 이란 라리자니에 이어 바시즈민병대 총지휘관, 정보부장관 등 추가 사망하며 지휘부 피해 지속. 라리자니 후임으로 강경파 잘릴리 전 사무총장이 언급.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종전 합의 가능성을 낮추고 핵무기 개발 추진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해석
- 유가의 키는 미국보단 이란에, 공급보단 지정학에 있음. 미국은 존스법 유예, 여름철 휘발유 규제 해제 등 단행. 밴스 부통령도 업계 회동 후 추가 대응조치를 발표를 예고했으나 유가 상승 지속. 반면, 앞서 이란이 위안화 결제 조건부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안을 8 개국과 논의를 진행한다는 보도에는 소폭 완화 흐름

전쟁 영향 반영 전 PPI 인플레 압력 시사. 연준은 매파적 동결, 전쟁 불확실성 표명

- 2 월 PPI MoM+0.7% 전월,컨센 상회하며 1 년만에 최고수준. 근원 PPI MoM+0.5% 컨센 상회, 전월비 둔화. 유가 급등 전에도 이미 공급망 전반에 인플레 압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
- FOMC 금리 동결, 2026 점도표 중간값 동일. 다만 인하 소수의견 위원수 감소, 점도표 인하 횟수 축소 쪽 의견 변경 등 위원들의 의견 변화 양상
- 경제 전망은 올해 GDP 성장률, 실업률, PCE 물가 전망치를 모두 상향. 특히 PCE 물가전망 2.4%→2.7%, 근원물가전망 2.5%→2.7% 등 상향한 가운데,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전쟁 영향은 불확실하다는 코멘트가 더해지면서 시장 우려 확대
- 국채금리 상승 10Y 4.270%(+6.8bp), 2Y 3.779%(+10.8bp)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MU	마이크론	+0.0%	장 마감 후 2Q26 실적 발표. 컨센 대폭 상회하는 실적과 가이던스 상향에도 불구, 시간외 4%대 하락 중. 3분기 가이던스에서 81%의 매출총이익률 제시했으나 향후 둔화 우려 부각
AMD	AMD	+1.6%	삼성전자와 차세대 AI 메모리 솔루션 협력 확대 소식에 주가 상승. 급증하는 AI 인프라 수요와 고대역폭 니즈 해결에 초점. 동사의 AI 가속기 시장에서 엔비디아와의 격차를 줄이고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승부수가 될 것
BOAT	글로벌해운 ETF	+6.6%	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급등을 방어하고자 미국 내 항만 운송 제한 규정인 존스법을 60일간 면제하기로 결정하며 주가 상승
AMZN	아마존	+4.2%	클라우드 및 물류 사업 불확실성 확대에 주가 하락. 마이크로소프트(-1.9%)는 아마존-Open AI간 $50B 규모의 클라우드 공급 계약에 법적대응 검토 위협. 또한 미 우체국은 기존 계약 대신 신규 경매시스템 도입, 동사는 물량 축소 가능성에 대비해 독자 노선 강화에 나서는 모습